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7. 26(금)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 동해안에도 국제크루즈선 뜬다! 올 12월, 포항 영일만항에 5만톤급 국제크루즈선 시범운항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동해안정책과	사진별첨
②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 경북에는 어림없다! 성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초동대응, 확산방지 대응태세 훈련 도내 양돈농가, 축산단체 관계자, 시군 가축방역관계 공무원 등 250여명 참여	동물방역과	
③ 여름휴가 봉화은어축제에서 은어 잡고(GO)! 더위 잡고(GO)! '뜨거운 여름 봉화은어 잡고(GO)! 한여름밤 더위 잡고(GO)!' 라는 주제로 27일(토) 개막 5년 연속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발돋움 어린시절 추억을 되살리는 은어 반두잡이 인기... 야간 프로그램 대폭 확대	관광마케팅과	
④ 경북도, 제5회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가져 26일(금) 경주에서 결혼 60년 이상 부부 20가정 회혼례 의식 재연	노인복지과	사진별첨
⑤ 청도 송금예천 풍정군위 화산마을 전국 최고 행복마을에 도전! 오는 8월 농식품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경북도 대표 행복마을 4개 마을 중 3개 마을 본선행	농촌개발과	사진별첨
⑥ 농촌으로 떠나는 경북여행 행복체험, 휴(休)~ 좋다! 도 농업기술원, 여름 휴가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농촌여행지 추천 경주, 김천, 경산 등 자연과 농촌을 느끼고 체험하는 농촌교육농장 10개소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⑦ 경북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잘 지켜 경북도, 50개 골프장 상반기 농약잔류량 실태조사결과... 사용기준 준수	보건환경 연구원	
⑧ 폭염시작!...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물놀이 사고 7~8월 집중 발생	소방본부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봉화은어축제' 개막식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현 표	
			팀 장	양병태 주무관	김형준
		연락처	054-880-7623		

경북 동해안에도 국제크루즈선 뜬다!

- 올 12월, 포항 영일만항에 5만톤급 국제크루즈선 시범운항 -
-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2020년 8월)에 대비, 오는 12월경 국제크루즈 유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크루즈 관광분야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항만 여건 부족으로 후발주자였으나, 국제여객부두가 준공되면 대형크루즈 선박 입항이 가능하게 돼 크루즈관광산업을 해양관광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포항 영일만항에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2017년 9월 착공, 국비 342억원을 투입해 길이 310m, 수심 11m로 7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 및 여객선이 접안 가능해 향후 물류 및 관광분야에서 환동해권의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도시를 바다를 통해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관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형 국제크루즈 모항 또는 기항 유치를 통해 대규모 국제 관광객 증대, 선용품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선사 취업 지원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제크루즈 유치 시범운항은 포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을 주요 코스로 5만톤급 이상(1,400명 정도 탑승)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 국내 크루즈항으로서 포항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크루즈관광객 유치와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크루즈 관광코스 개발로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울릉을 비롯 대구시까지 연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지를 가진 경북 동해안의 매력을 해양수산부, 국제선사, 국내여행사 등에 세일즈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간 크루즈산업의 신규 주자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 크루즈유치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 경북 문화관광공사 간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도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작은 토론회 개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경북도 자체 실정에 맞는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대책 수립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도는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포항·경주시, 영덕군, 경북 문화관광공사, 대경대학교 관광크루즈승무원과(김종남 교수) 등 16명으로 이뤄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26일(금)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관계기관 간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는 5. 15일 체결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대구시·시군·대학 간 상시 협력 채널 구성을 통해 동해안 크루즈관광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항 크루즈관광산업의 현황 발표 ▲동해안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자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시 관광부분과 연계, 상생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광역권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요 도시별 모항, 기항 관련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정보 교환 ▲크루즈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강화 ▲동해안 광역권 크루즈 해양관광코스 공동 개발 추진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심 유도를 위한 공동 노력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환동해 연안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국제크루즈 산업과 연계해 도내 크루즈관광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크루즈 관광시책을 발굴하고 도와 대구시, 동해안 5개 시군,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포항영일만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크루즈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경북을 크루즈관광의 중심지로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7. 26.(금) 14:00~16:00

○ 장　　소 :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1층)

○ 참　　석 : 16명 정도

- **道 –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정책과장, 해양관광개발팀장 등
- 대구시 - 관광과장, 관광마케팅팀장 등
- 시군 – 포항·경주시, 영덕군 해양관광 담당과장 및 팀장 등
- 道 문화관광공사 - 마케팅전략실장, 마케팅기획팀장 등
- 대경대학교 -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김종남 교수

○ 주요내용

- 포항 크루즈관광산업 현황 발표 및 동해안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 자율토론, 기념촬영 등

□ 시간계획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국민의례)	사회자
14:05 ~ 14:10	5’	인사말씀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14:10 ~ 14:30	20’	포항 크루즈관광산업 현황 발표	포항시
14:30 ~ 15:50	20’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김종남 교수
15:50 ~ 16:00	70’	**자율토론**, 기념촬영 - 동해안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성자	과 장	김 규 섭	
			팀 장	이정아	주무관 박인화
		연락처	054-880-344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 경북에는 어림없다!

- 성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 초동대응, 확산방지 대응태세 훈련 -

- 도내 양돈농가, 축산단체 관계자, 시군 가축방역관계 공무원 등 250여명 참여 -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26일(금) 성주군 수륜면 어울림마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천봉쇄와 초동진압을 위한 ‘현장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역 양돈농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방역 관계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축협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차단방역의 주안점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부여해 훈련했다.

훈련 상황은 성주군 용암면 한 양돈농가에서 폐사가 발생하고 청색증, 고열, 혈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축주의 의심축 신고를 시작으로 가축방역관 출동, 초동방역 조치,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 역학조사, 상황전파 및 일시 이동중지, 현장 통제초소 설치, 살처분, 방역대 설정,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심각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및 종식에 따른 재입식 등 각 단계별 행동요령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국내발생 경험이 없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초기 발견을 위한 임상증상 관찰과 확진을 위한 신속한 진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는 질병 발생 초기의 빠른 발견과 신속한 진단이 전염병 확산 방지의 주효점이란 판단에서 이뤄졌다.

가상방역훈련에 이어 참석한 축산농가와 방역공무원, 축산관계자 전원은

차단방역만이 우리 축산업의 살길임을 함께 인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청정화와 지속가능한 희망축산을 위한 자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국내 유입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대책(전담요원 임상관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 특별관리, 양돈농가해외여행 자제, 야생멧돼지관리, 주기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모니터링 검사)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질병발생을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농가소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새바람 행복 경북!

ASF 현장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대비하여 초동방역 능력 배양, 신속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차단방역 대응체계 숙달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의 내용 숙지 및 실효성 검증

훈련개요

○ 일　　시 : 2019. 7. 26(금)　15:00 ~ 17:00

○ 장　　소 : 성주군 수륜면 어울림마당 일원 (국제하키장, 수륜면 수성리 104)

○ 참여기관 : 경북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 참 석 자 : 250여명

○ 훈련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의거 단계별 조치사항

※ 훈련방법 : PPT보고, 동영상 및 현장시연 훈련

훈련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5:00	30′	• 등록(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104 일원)	
15:00~15:10	10′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자
15:10~15:30	20′	• 환영사 및 인사말씀	* 성주군수 농축산유통국장 이수경 농수산위원장 도. 군의회 의원 등
15:30~15:35	5′	• 훈련목적 및 개요 설명	* 성주군 농정과장
15:35~15:45	10′	• 평시 발생상황 및 가상방역상황 브리핑	* 성주군 축산방역담당
15:45~16:50	65′	• 현장훈련 시연	* 성주군 축산방역담당
16:50~16:55	5′	• 청정축산 결의문 낭독	* 축산농가 및 공무원대표
16:55~17:00	5′	• 총평 및 퍼포먼스	* 성주군수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자	과 장	김 병 곤	
			팀 장	황의철	주무관 장수희
		연락처	054-880-3212		

여름휴가 봉화은어축제에서 은어 잡고(GO)! 더위 잡고(GO)!

- ‘뜨거운 여름 봉화은어 잡고(GO)! 한여름밤 더위 잡고(GO)!’ 라는 주제로 27일(토) 개막 -
- 5년 연속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발돋음 -
- 어린시절 추억을 되살리는 은어 반두잡이 인기... 야간 프로그램 대폭 확대 -

뜨거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봉화은어축제’가 전국 곳곳의 행락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뜨거운 여름 봉화은어 잡고(GO)! 한여름밤 더위 잡고(GO)!’ 라는 주제로 27일(토)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과 신구시장에서 9일간 개최된다.

낙동강과 한강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내성천은 1급수에서 사는 은어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 봉화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민물고기로 유명하다. 은어는 맛이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해 주로 회로 먹으며 수박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은어 낚시, 전국 반두잡이 어신 선발대회 등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방학을 맞아 어린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린시절 냇가에서 놀던 추억을 되살려 은어 반두잡이에 참여 해 휴가철이면 매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해 한여름밤 맥주페스티벌을 비롯해 내성천 수변무대 공연, 신구시장 터널주변 경관조성, 버스킹 공연, 마칭밴드 퍼레이드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전국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은어 숯불구이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전국난타대회, 개·폐막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 등 주요 행사가 열린다.

봉화은어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 축제로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지정된 축제다. 지난해에는 5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아 우리나라 겨울 대표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와 비견될 만큼 여름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축제에 참석 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축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이벤트로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봉화은어축제가 여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 」

제21회 봉화은어축제

≪ 축 제 개 요 ≫

◇ 기　　간 : 2019. 7. 27(토) ~ 8. 4(일), 9일간
◇ 장　　소 :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
◇ 주　　제 : 뜨거운 여름 봉화은어 잡GO! 한여름밤 더위 잡GO!
◇ 주최/주관 : 봉화군/(사)봉화군축제위원회
◇ 참여인원 : 50만명 정도

□ 개막식 개요

○ 일　　시 : 2019. 7. 27.(토) 13:40~14:00(20분)
○ 장　　소 : 봉화읍 체육공원 수변무대
○ 참　　석 : 5,000명 정도(도지사, 봉화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

□ 시간계획(안)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 고
13:40~13:43	3′	행사안내	LED영상연출
13:43~13:46	3′	내빈소개	
13:46~13:48	2′	환영사(봉화군수)	
13:48~13:50	2′	개회사(봉화군축제위원장)	
13:50~13:56	6′	축사(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	
13:56~14:00	4′	퍼포먼스(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 개막선언(군의회 의장)	
14:00~14:20	20′	행사장 라운딩(주요내빈)	

※ 하실 일 : 축사, 퍼포먼스, 행사장 라운딩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작성자	과 장	강 상 기	
			팀 장	김동기	주무관 조영준
		연락처	054-880-3743		

경북도, 제5회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가져

- 26일(금) 경주에서 결혼 60년 이상 부부 20가정 회혼례 의식 재연 -

경상북도와 (사)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26일(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혼인한 지 60년 이상 된 장수부부 20쌍에게 결혼 예순 돌을 축하하는 전통회혼례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통 혼례절차에 따라 기러기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전안례',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상견하는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청실홍실로 묶은 표주박에 든 술을 서로 교환해 마셔 하나가 된다는 '합근례', 혼례 성사를 하늘에 고하는 '고천문 낭독', '회혼선포'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초청가수 축하공연, 전통국악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경상북도 장수부부 전통회혼례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 87쌍의 장수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점점 퇴색돼가는 가족공동체 회복과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청춘남여가 젊은 시절 만나 60년 세월을 함께 하면서 인생의 힘든 고비를 극복해 오신 장수부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통적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늘 전통회혼례 행사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아주 뜻깊은 자리" 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새바람 행복 경북!

제5회 경상북도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개최

❖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는 부부 어르신 회혼례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재조명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7. 26(금) 11: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 200명 정도

- 결혼 60주년 이상된 부부 20가정 및 가족, 친지 등

○ 내　　용 : 경상북도 장수부부 전통회혼례

○ 주　　관 : (사)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 세부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식전행사	09:00～10:00	60′	◦ 환복 및 기념촬영 - 부부 및 가족사진 촬영	
	10:30～11:00	30′	◦ 식전공연	
회 혼 례	11:00～11:05	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1:05～11:15	10′	◦ 인사말씀 및 축사	도 노인회장 등
	11:15～12:30	75′	◦ 전통 회혼례 (점촉식,전안례,교배례,근배례 등)	장수부부 20가정
식 사 및 식후행사	12:30～14:30	120′	◦ 중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폐 회 식	14:30～		◦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촌개발과		
		작 성 자	과 장	박 동 엽	
			팀 장	염태용	주무관 채희상
		연 락 처	054-880-3395		

청도 송금·예천 풍정·군위 화산마을 전국 최고 행복마을에 도전!

- 오는 8월 농식품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

- 경북도 대표 행복마을 4개 마을 중 3개 마을 본선행 -

경상북도는 도 대표 행복마을 4개 마을 중 청도 송금마을, 예천 풍정마을, 군위 화산마을 등 3개 마을이 오는 8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청도 송금마을(소득·체험), 예천 풍정마을(문화·복지), 군위 화산마을(경관·환경), 영주 주치골마을(아름다운 농촌만들기)은 지난 7월 4일 도 예선에서 4대 분야별 대상을 차지해 도 대표 행복마을로 선발됐으며, 이후 16~17일까지 중앙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마을이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했다. 영주 주치골 마을은 아쉽게도 본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본선은 내달 28일 대전 케이티(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9개도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개 마을(분야별 5개 마을)이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마을발전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발표와 퍼포먼스로 분야별 최종 순위를 정한다.

시상은 분야별로 대통령상인 금상* 1개마을 40백만원, 국무총리상인 금상 3개마을 각 30백만원, 은상(장관상 4) 각 20백만원, 동상(장관상 4) 각 15백만원, 입선(장관상 8) 각 10백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 마을이 2021~202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총점의 최대 15% 가점이 주어지며, 공모에 당선되면 최대 2억 5천만의 국비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4대 분야별 금상 4개 마을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마을은 대통령상(40백만원), 나머지 금상 3개 마을은 국무총리상(각 30백만원) 시상

한편 경북도는 2014년(제1회) 청도 성곡1리와 울진 하당리가 동상, 2015년(제2회) 칠곡 금남2리가 금상, 2016년(제3회) 상주 서원1리가 금상, 칠곡 어로1리가 동상, 2017년(제4회) 상주 정양리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제5회)에는 아쉽게도 본선 진출 마을이 없었다.

올해 경북도 대표마을 4개 마을 중 3개 마을의 본선 진출은 콘테스트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와 시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참여의지로 똘똘 뭉친 마을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주민들의 웃음 넘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앙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고의 행복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김 현 옥		
			팀 장	원민정	담당자	권영하
		연 락 처	053-320-0492			

농촌으로 떠나는 경북여행 행복체험, 휴(休)~ 좋다!

- 도 농업기술원, 여름 휴가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농촌여행지 추천 -
- 경주, 김천, 경산 등 자연과 농촌을 느끼고 체험하는 농촌교육농장 10개소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자연과 농촌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농촌여행지로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과 연계한 농촌여행코스를 추천했다.

바쁜 직장생활과 학업으로 지친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아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인성함양을 키워줄 수 있는 농촌체험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내 농촌교육농장과 지역 맛집을 연계한 여름철 농촌관광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 생태농장은 300여 종류의 수목류와 허브, 야생화 등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식물관찰, 화분정원 만들기 등의 힐링체험을 하고 농가맛집 고두반에서는 전통 손두부와 장을 이용한 건강밥상을 맛볼 수 있다.

★ 관광자원 : 불국사, 남산, 보문관광단지, 국립경주박물관, 선덕여왕릉 등

김천 마고촌에서는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적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토맛집 다정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례흑돼지 불고기, 오미자 표고버섯 강정 등 향토개발음식 10선을 맛볼 수 있다.

★ 관광자원 : 직지사,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부항댐, 지례향교 등

경산 포니힐링관광농원에서는 농작물수확체험과 함께 승마체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고 샘이깊은물에서는 다양한 계절밥상과 함께 다양한 장아찌를 맛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며 인근에는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 관광자원 : 삽사리테마파크, 갓바위불상(약사여래불), 팔공산 등

의성 지당들은 유기농업으로 유기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바른먹거리 교육, 청소년 진로콘서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마늘장아찌, 마늘비누·마늘초·마늘공예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관광자원 : 산운마을, 조문국박물관, 빙계계곡, 사촌마을 등

영양 산골애농장에서는 농산물의 재배과정을 배우고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데 대표체험으로는 고구마수확, 고구마피자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콩수확 및 두부만들기 체험이 있다.
★ 관광자원 : 두들마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지훈문학관 등

고령 예마을은 체험휴양마을,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예마을 피자만들기, 떡메치기 체험, 넵킨아트손거울 만들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얏고마을은 12현의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야금 휴양마을로 가야금 연주 체험, 가야금제작 체험, 미니가야금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농가맛집 참살이에서는 무쇠가마솥밥, 쇠고기 전골, 마늘소스를 이용한 아로상태수육 등 웰빙식단을 맛볼 수 있다.
★ 관광자원 :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개실마을 등

칠곡 덕산수목원에서는 새우낚시, 새우피자만들기 등 새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고, 태장고에서는 전통장을 바탕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장의 우수성과 안전한 먹거리, 예절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꿀벌나라테마공원에서는 칠곡의 대표 특산품인 벌꿀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관을 조성해 꿀벌생태체험, 양봉산물체험, 꿀뜨기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관광자원 : 양떼목장, 팔공승마장, 지천수상레저, 각산마을 등

이외에도 도내에서 운영 중인 60여개 농촌교육농장에 관한 정보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사업장에 사전문의와 예약을 해야 한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올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맡기고 휴식하는 ‘힐링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 여름철 추천하는 농촌교육농장 및 농촌체험마을 : 10개소

시군	대 표 자 현 황			교육주제
	농 장 명	성 명	위 치	
경주	여연생태	최향미	안강읍 사방검단길 282	야생화, 생태
김천	마고촌	강종말	남면 섶발길 157-36	흙에서 도자기까지
경산	포니힐링관광농원	김복란	와촌면 갈밭길 102	말과 함께 자연에서 놀다
의성	지당들	박희태	춘산면 효선3길 161	유기농산물 활용한 가공
영양	산골애	조미애	석보면 압수길 57	산골이 들려주는 콩이야기
고령	예마을	김병환	덕곡면 덕운로 816	스마트팜 딸기농장
	가얏고마을 (전통체험마을)	안상호	대가야읍 정정골길 55	가야금 역사체험
칠곡	덕산수목원	황병도	지천면 덕산리 17-16	새우관찰, 요리체험
	태장고	정경태	동명면 양지길 32	전통장 만들기 체험
	꿀벌나라테마공원 (농촌테마파크)	농업기술센터	석적읍 강변대로 1580-1	꿀벌생태체험

□ 농가맛집 : 4개소

시군	대 표 자 현 황			주 메뉴
	업 체 명	성 명	위 치	
경주	고두반	최성자	대기실3길 11	전통밥상, 두부삼합
김천	다정	박정애	농소면 영남대로 2228	지례흑돼지불고기, 우렁쌈장 등
경산	샘이깊은물	한선희	와촌면 대한리 207-1	연잎밥, 경산대추 돼지갈비
고령	참살이	최해연	대가야읍 큰골길 2084	참살이정식, 정나눔정식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작 성 자	부 장	백 하 주	
			과 장	김태분	주무관 윤인주
		연 락 처	054-339-8202		

경북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이상무!

- 경북도, 50개 골프장 상반기 농약잔류량 실태조사결과... 사용기준 준수 -

경상북도는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50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 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총 450건)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0종)이 검출되었으며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조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골프장 이용객과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북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26(금)】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 성 자	과 장	백 승 욱	
			팀 장	김인식	주무관 김상규
		연 락 처	054-880-6330		

폭염시작!... 물놀이 사고 조심하세요

- 물놀이 사고 7~8월 집중 발생 -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을 맞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2분경 경주시 00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씨(21세, 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지난 15일 오전 9시53분경 경주시 00리조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의 물놀이 사망사고는 165건으로 주요 원인은 수영미숙(51명, 31%), 안전부주의(36명, 22%), 음주수영(28명, 17%)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시작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입수하고 특히 어린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음주 후 물놀이 활동은 절대 하지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백승욱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매년 휴가철에는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봉화은어축제’ 개막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27일(토) 오후 1시40분 봉화 내성천 일원에서 열리는 ‘봉화은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행사장을 둘러본다.